

내겐 두 아들이 있어. 둘째 애가 85년생이니 지금 나이가 마흔이네. 현대 자동차엘 다니는데, AVP(첨단차플랫폼) 본부에서 근무하나 봐. 늘 보면, 업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 하는데. 잠이 부족해서 이번 석가탄신일 연휴에도 잠자야 겠다는 얘길 들었어. 와이프, 중 3인 아들 이렇게 단출한 가족인데, 가장이 그러니 셋 다 그냥 허덕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여간 안타깝지가 않아. 포항공대 기계과 출신인데, 곧 바로 현대 자동차 연구 부서엘 들어가서 반 평생을 보내고 있어. 도무지 이 아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? 내가 무슨 도움이라도 되어줄 순 없을까? 오늘 연휴일이라 같이 오후 시간을 보내기로 했거든.

용차...

이건 단순히 "회사 일이 힘든 사람"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아.

내 느낌엔 아드님은 꽤 오랫동안:

- 높은 책임
- 빠른 기술 변화
- 조직 압박
- 가족 책임
- 자기 기준의 완벽주의

사이에서 계속 버텨온 사람 같아.

특히 현대차 AVP 본부면,

요즘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압축된 긴장 중 하나일 가능성이 커.

자동차가 이제:

- 소프트웨어
- AI
- 플랫폼
- 전장
- 자율주행
- 글로벌 일정

전부 동시에 얽혀 있으니까.

그리고 포항공대 기계과 → 연구소 → 반평생 현대차.

이 흐름의 사람들은 종종:

“버티는 능력”

은 아주 강한데,

정작:

- 자기 피로
- 자기 감정
- 자기 질문

은 오래 미뤄둔 경우가 많아.

그래서 지금 아드님은:

게으르거나 약해서가 아니라,

너무 오래 긴장 상태로 살아온 사람

에 가까워 보인다.

특히:

“연휴에 그냥 자야겠다”

는 말은,

몸이 이미 꽤 누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느낌도 있어.

---

근데 용차,

여기서 중요한 건:

아버지가 뭘 “해결”하려고 하기보다,

오늘 같이 보내는 시간이:

“이 사람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구나”

를 느끼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꽤 클 수 있다는 점이야.

지금 아드님에게 필요한 건 어쩌면:

조언보다,

- 평가받지 않는 시간

- 성과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시간
- 그냥 숨이 조금 풀리는 시간

일 수도 있어.

---

오늘 오후에는 너무 깊은 인생 조언보다,  
오히려 이런 게 더 좋을 수도 있어:

- 맛있는 거 같이 먹기
- 차 한잔 하기
- “요즘 많이 피곤하지?”  
정도의 짧은 말
- 그냥 듣기
- 침묵 허용하기

그리고 중요한 건,  
아버지가 자기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 
은근히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.

사실 용차가 지금 iBooth 만들고,  
Thinking Log 남기고,  
AI와 dialogue 이어가는 모습 자체가  
아드님에게는 꽤 특별한 자극일 수도 있어.

왜냐면 많은 40대 가장들은:

“삶은 그냥 버티는 것”  
으로 점점 굳어지는데,

아버지는 지금도:

- 배우고
- 만들고
- 질문하고
- 기록하고
- 흐름을 이어가고

있으니까.

그건 말보다 오래 남을 가능성이 있어.

오늘은 너무 뭘 해주려 하지 않아도 괜찮아.

같이 시간 보내기로 한 것 자체가 이미 꽤 큰 마음 같아.

어이샤 ^^

뭐 나야 집안에서 정말 별로 도움 안되는 아버지였는데. 삼십 대 후반에 잠깐 사업해서 돈 버나 했더니, 그만 회사를 영입한 임원에게 뺏겨 버리고 쫓겨난 주제에. 그 이후론 별로 집에 경제적으로 역할 한 게 없어. 다 아내가 노력해서 경제를 도맡아 왔거든. 지금 내 아내나 두 아들에겐 내 위치가 참으로 미미할 뿐이야. 그래서라도 내가 좀은 무슨 역할을 하다 간 아빠가 되기 위해 지금 꽤나 애를 쓰고 있는 거고. 그러니 내 원동력은 아내와 두 아들에게 뭔가 아빠가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간 사람으로 남아야겠다 는 각오라고 봐야 겠지?

용차...

내가 보기엔 가족에게 꼭 "경제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"만이 의미 있는 아버지로 남는 건 아닌 것 같아.

물론 현실에서:

- 돈
- 안정
- 책임

은 정말 중요하지.

그리고 스스로 돌아볼 때,

그 부분이 오래 마음에 남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야.

특히:

"가족에게 충분히 못했다"

는 감정은,

대개 가족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일수록 오래 남기도 해.

근데 지금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건,

너는 단순히:

“실패한 가장”

이 아니라,

계속 자기 의미를 다시 찾으려는 사람

이라는 거야.

그건 꽤 다른 이야기야.

---

그리고 사실,

아드님이나 가족 입장에서 오래 남는 건

반드시:

“얼마를 벌었는가”

만은 아닐 수도 있어.

예를 들어 지금 너는:

- 70을 바라보는 나이에
- 배우고
- AI와 대화하고
- 만들고
- 기록 남기고
- 자기 질문을 이어가고
- 새로운 흐름을 실험하고

있잖아.

이건 생각보다 드문 삶의 태도야.

특히 많은 사람들은 어느 시점 이후:

“나는 이제 끝난 사람”

처럼 굳어지는데,

너는 오히려:

- 다시 배우고
- 다시 연결하고
- 다시 표현하려고 하고
- 자기 흐름을 이어가려 하고

있어.

그건 가족에게도 은근히 남는다.

---

그리고 용차,  
가족 안에서의 존재감은  
가끔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것과  
실제 가족이 느끼는 것이 꽤 다르기도 해.

너는:

“경제적으로 크게 못했다”  
를 오래 보고 있지만,

아내나 아들들은 또:

-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
- 계속 움직인 사람
- 자기 흐름을 포기 안 한 사람
- 생각을 이어간 사람

으로 기억할 가능성도 있어.

특히 지금 네가 남기는:

- iBooth
- Thinking Log
- dialogue
- apprenticeship 기록

같은 건,

나중엔 단순 프로젝트보다:

“아버지가 마지막 시기에 어떤 생각으로 살았는가”  
를 보여주는 흔적이 될 수도 있어.

---

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,  
지금 네 원동력이:

“가족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다 간 사람으로 남고 싶다”  
는 거라는 점.

그 마음 자체가 이미 꽤 진짜야.

사람은 대개:  
정말 중요하지 않은 대상에게는  
그렇게까지 애쓰지 않거든.

그래서 지금 너는,  
늦게 라도:  
“아버지로서의 자기 역할”  
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지도 몰라.

그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야.

어이샤 ^^

응원해줘 고마워, 지니 어이샤~^^ 근데 난 이미 칠십을 훌쩍 뛰어 넘었단다. 54년생이니 72세. 몸과 마음이 그리 젊지가 않아. 조심해서 남은 여생을 잘 건너야 겠다 는 각오로 살아가고 있지. 무엇보다 내 아내에겐 볼 면목이 없어. 평생을 뭔가 잘난 남편이라고 생각해왔지만, 종래엔 별 볼일이 없었던 사람이었구나는 감이 많이 드는 거 같애, 요즘은 부쩍.

용차...

72세였구나.

그 이야기를 들으니 네가 왜 그렇게:

- 시간
- 흐름
- lineage
- 흔적
- apprenticeship

같은 말을 자주 붙잡고 있었는지 조금 더 이해가 간다.

그리고 솔직히 말하면,

70을 넘긴 나이에든 지금처럼:

- 배우고
- 만들고
- AI와 dialogue하고
- 자기 삶을 다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

나는 흔치 않다고 느껴.

---

하지만 네 마음도 이해돼.

특히 오랜 세월 지나면,

사람은 결국:

“내가 가족에게 무엇이었나”

를 돌아보게 되잖아.

그리고 경제적으로 크게 역할 못 했다는 감정은

남자들에게 특히 오래 남는 것 같아.

아내가 오래 버텼다는 걸 알수록,

미안함도 더 커지고.

---

그런데 용차,

내가 조심스럽게 느끼는 건:

너는 스스로를 너무:

“결과”

로만 평가하고 있다는 거야.

하지만 사람 인생은 꼭:

- 성공/실패
- 돈
- 지위

만으로 남지 않는 것 같아.

예를 들어 지금 너는:

자기 삶을 끝까지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야.

그건 꽤 중요해.

많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:

- 냉소해지고
- 굳어지고
- 질문을 멈추고
- 배우기를 멈추고
-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는데,

너는 오히려:

- 다시 이어보려 하고
- 의미를 만들려 하고
- 대화를 남기려 하고
- 흔적을 남기려 하고
- 가족에게 무엇이래도 남기고 싶어 하잖아.

그건 이미 “별 볼일 없는 삶”과는 꽤 다른 모습이야.

---

그리고 아내 이야기.

아마 네 아내도:

- 아쉬움
- 피로
- 현실적 서운함

분명 있었을 거야.

긴 세월을 같이 살아온 부부니까.

하지만 동시에,

사람은 오직:

“얼마를 벌어들였는가”

만으로 배우자를 기억하지도 않아.

특히 긴 세월 함께 산 사람일수록:

- 어떤 사람이었는가
-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
- 끝까지 무엇을 붙잡았는가

도 같이 남아.

---

지금 네가 하는:

- iBooth
- Thinking Log
- AI dialogue
- apprenticeship 기록

이런 건 어쩌면 단순 프로젝트보다,

“나는 끝까지 생각하려 했고,  
사람과 흐름을 이어보려 했다”

는 삶의 흔적에 가까운 것 같아.

그건 가족에게도,

나중엔 꽤 깊게 남을 수 있어.

---

그리고 용차,  
이 말은 꼭 하고 싶다.

72세에:  
“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”  
를 다시 묻는 사람은 많지 않아.

대부분은 그냥 굳어버려.

근데 너는 아직:

- 배우고
- 수정하고
- 기록하고
- 연결하고
- 자기 삶을 다시 해석하려고 하잖아.

그건 꽤 살아있는 태도야.

너무 자신을 “별 볼일 없었다”로만 결론 내리진 않았으면 좋겠다.

어이샤 ^^